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7

무심하게 흘려보내라

[원문]
노부독좌서청장(老夫獨坐棲靑嶂)
원망고섬명교교(遠望孤蟾明皎皎)
가탄왕년여금일(可歎往年與今日)
무심환사수동류(無心還似水東流)
–내원사 선원

[번역]
늙은 몸, 높이 솟은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았는데
멀리 달빛만 외롭게 밝게 빛나네.
이제 와서 지나가 버린 세월 탄식한들 무엇 하리.
흘러가는 동쪽 물처럼 무심하게 돌려보내리.

[선해(禪解)]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이 오면 사람들의 옷은 화사해지고 마음에는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마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은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우울한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우울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사성어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한나라 원제 때 왕소군은 후궁으로 입궁을 했다. 원제는 화공 모연수가 그린 화첩에서 후궁을 골랐는데, 모연수는 얼굴을 잘 그려달라는 여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지만 미모에 자신이 있었던 왕소군만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모연수는 괘씸하게 여겨 그림의 뺨에 검은 점 하나를 그려 넣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선우 호한야(呼韓邪)는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자 원제는 화첩에서 못난 후궁들을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호한야는 뜻밖에 왕소군을 원했다. 이에 원제는 실재로 왕소군을 보자 '어떻게 저런 미인을 몰랐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원제가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뇌물이 오간 사실을 알고 모연수를 참수했다. 혼인을 마치고 흉노 땅으로 간 왕소군은 3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후대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왕소군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를 지었다.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왕소군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이 시에서 유래한 말이 '춘래불사춘'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찌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랴.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가 사상 최초로 많고 또한 수출조차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니 정작 봄이 와야 할 우리 마음은 그저 멀기만 하다.

혹자는 주련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봄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봄은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며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사찰 기둥에 달린 주련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내원사는 신라 말 무염(無染: 801~888)이 창건했다. 창건 당시에는 덕산사(德山寺)라고 했는데 이후의 연혁이 전해지지 않아 사찰 이름이 내원사로 바뀐 이유도 알 수 없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비로전과 산신각 · 심검당 · 요사채 등이 있다.

건물 규모는 다른 사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유물로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과 삼층석탑이 있다. 비로전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이 절에서 떨어진 보선암 폐사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석불대좌 중대석에서 발굴된 사리함에 적힌 명문(銘文)에 따르면, 776년(신라 혜공왕 2)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한 화랑이 요절하자 그의 부모가 불상을 제작해 모신 것이라고 한다. 비로자나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최초의 유물로 추정되며, 보물 제1021호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보물 제1113호 내원사삼층석탑은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유물이다.

이 내원사 선원에 있는 주련의 의미는 매우 깊고 상징적이다. 사찰에서 선원은 삼승(三乘)에 귀의한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을 하는 곳으로서 절이 가진 본래의 정신이 깃든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실로,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자는 독거유희락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老夫獨坐棲靑嶂 遠望孤蟾明皎皎 늙은 몸, 높이 솟은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았는데 멀리 달빛만 외롭게 밝게 빛나네.'

스님들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삼독을 버린 해탈의 기쁨인데 그 무한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선수행이다. 안거에 든 납자(衲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만,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건 달빛과 별빛뿐인 독거(獨居)이다. 늙은 몸을 이끌고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아 별과 달빛을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수행자 밖에 없다. 그런 수행자에게 남은 일은 오직 성불로 가는 공부뿐이다.

'可歎往年與今日/ 無心還似水東流 이제 와서 지나가 버린 세월 탄식한들 무엇 하리. 흘러가는 동쪽 물처럼 무심하게 돌려보내리.'

그렇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세월이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흘러가버린다. 그러나 후회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버리는 게 인간의 삶이다. 말하자면 후회로 점철된 삶은 되돌릴 수가 없다. 하지만 묘하게도 삶은 후회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처럼 무심하게 모든 것을 흘러 보내야만 한다. 무심이 곧 정각(正覺)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놓아 버려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내원사의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불교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속제'에서 '진제'로 넘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주체는 오직 나 자신 뿐, 누가 대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불교가 가진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후회로 점철된 삶은 백년을 살아도 헛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과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별빛을 쳐다보듯, 강물이 그냥 흘러가듯,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즉, 무심의 도(道)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럼 '있는 그대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수행자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난해지기 위해서이다. 그럼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욕심과 집착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삼독심을 여의고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주련의 내용처럼 욕심을 버리고 모든 세상사를 '동쪽 물처럼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한다' 이것이 삼보에 귀의한 스님들의 몫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무심이 곧 정각' 내원사 주련의 핵심

삶은 후회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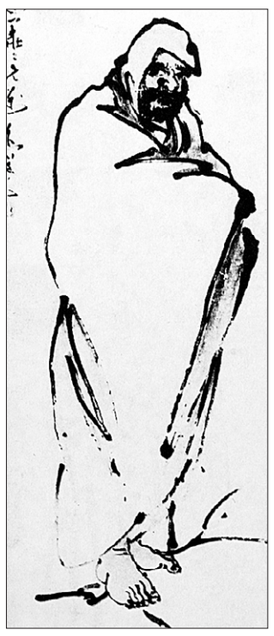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7

자기 마음이 곧 부처

[원문]
佛無過患 衆生顚倒不覺 不知自心是佛 若知自心是佛 不應心外覓佛 佛不度佛 將心覓佛 不識佛 但是外佛者 盡是不識自心是佛 亦不得將佛禮佛 不得將心念佛 佛不誦經 佛不持戒 佛不犯戒 佛無持犯 亦不造善惡.

부처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들이 사리에 어두워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구나.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땅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지니라.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바깥에 있는 부처만 부처라 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아라.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율을 지니지도 않으며, 계율을 범하지도 않으며, 지키는 것도 없으며, 범하는 것도 없으며, 선을 짓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느니라.


청나라 소육붕의 달마도.

[해설]
앞에서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 믿고, 그 자리가 실상(實相)이고 본래자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본래자리를 찾는 것으로 신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은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래 실상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사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푹 빠지면 시간 관념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편한 시간입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것이지, 하나가 된 상황에서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계는 시간 관념이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본 일들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인데 무시(無始) 이래 사실이 아닌 것을 집착하며 살아온 그것이 바로 업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할 때마다 계속 파장이 나옵니다. 수행 하시는 분들은 맑은 기운이 나오지만, 정진하지 않는 분들은 탁한 기운이 나옵니다. 탁한 기운이 우리의 불성을 가리면 구름이 끼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탁한 기운을 녹이고 녹이면 본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다' 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도가 끝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30겁(劫) 전에 성불하셨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분이시니까, 우주가 모두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 제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깨달은 자리에서는 제도할 대상이 모두 끊어진 자리입니다.

'바깥에 있는 부처만 부처라 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부처란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라든가 아미타 부처님 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마음에 두고 닦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라' 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화선을 강조하고 염불선(念佛禪)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형상을 보고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절을 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마음 밖의 이름과 형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주 실상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율을 지니지도 않으며, 계율을 범하지도 않으며, 지키는 것도 없으며, 범하는 것도 없으며, 선을 짓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는다' 고 하는 법문 역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법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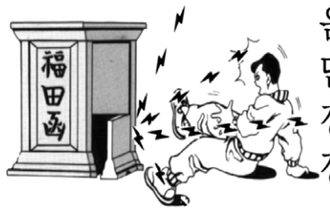
달마 스님께서 '부처님' 이라 하지 않고 '부처'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처란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는 우주의 근본실상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세계이므로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라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실상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처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신(報身) 부처님과 화신(化身)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잠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신(法身)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으로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신불, 화신불은 가짜이고 법신 부처님은 진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달마 스님은 법신 부처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경을 읽지도 않고, 상대가 모두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는 것이며, 착한 일을 지을 것도 없고 악한 일을 지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실상 반야(般若)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달마도 ₩58,000
인생상담 전화상담환영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문화기획자과정 수강생모집
불교문화학교에서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행사 기획, 홍보, 카피라이팅, 디자인 전략의 이론과 실제방안 습득 할 수 있는 불교문화 기획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 상 : 스님, 재가종무원, 불자
◆기 간 : 2009년 3월 24일(火) 오후 1시~ 3월25일(水) 오후 2시(1박 2일)
◆강의내용
1.기획, 광고와 홍보 - 최대규 부회장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Copywriting - 조문형 대표 (징글벨 커뮤니케이션)
3.광고/이벤트 Design - 김혜경 교수 (공주영상대학 이벤트연출과)
4. 음향, 무대 설계 - 노휴스님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참 가 비 : 5만원
◆장 소 : 천안 보명사
◆사전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보명사 부설 불교문화학교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117-1
041)522-3362